

“도와주러 갔다가 훈장 받고 오지요”

실적 우수자 해외연수 및 취업 최우선 추천...봉사 생활화 유도

봉사도 하고 훈장도 받는다? 사회봉사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그 실적에 따라 표창을 하는 사회봉사 적립통장 및 봉사훈장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2000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새 학기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는 본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봉사통장을 소지하게 하

여 생활 속에서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봉사활동 실적을 채용기준에 반영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참가 봉사단의 활동을 재학생 전원에게 권고하고 그 실적에 따라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봉사 활동은 연 4회 계절별로 이뤄지며 활동기간 중에 33시간 이상 봉사하면 사회봉사 1학점을 패스할 수 있다. 단, 한 학기에 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봉사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과 해외연수 및 취업 추천시 최우선으로 추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봉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참가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50여 개의 봉사기관과 5백여 가지의 봉사프로그램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봉사활동과 관련해 참가 봉사단의 최정숙 담당자는 “봉사통장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봉사의 값진 의미를 알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입학식... 지난 2일 민해광장에서 2천여명의 신입생들이 모인 가운데 2000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됐다.

봉사훈장 등급 및 보상

등급	보상
봉사훈장 금장	- 재학기간을 통틀어 봉사시간이 1천시간 이상인 자로서 '봉사회수 3백회 이상' 인자 - 장학금(등록금 전액) 또는 부상
봉사훈장 은장	- 재학기간을 통틀어 봉사시간이 7백시간 이상인 자로서 '봉사회수 2백회 이상' 인자 - 장학금(등록금 반액) 또는 부상
봉사훈장 동장	- 1년간 봉사시간이 2백50시간 이상인 자로서 '봉사회수 80회 이상' 인자 - 장학금(3십 만원) 또는 부상

양캠프 교원 보직 인사 단행 직원 신규임명도 함께

본교는 지난 3월 1일자로 양캠프 교원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캠프의 경우 △문화예술대학 원정=안민수(연극영화학) △경영대학장=김태홍(국제통상학) △보건소장=정지현(한의학) △가상대학장=박부권(교육학) △창업지원단장=이종욱(정보관리)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장=유석현(경영학)이 임명됐다.

한편 경주캠프에서는 △관광대학장=서태양(관광경영학) △의과대학장=황정수(의학) △동대신문사 부주간=백승석(중어중문학) △언어연구교육원장=정내원(영어영문학) △관광산업연구소장=하현국(관광경영학) △기획처장=오홍세(국어국문학) 이 임명됐다.

또한 신규직원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서울캠프는 △기획인사처 인사관리팀=김태영 △교무처 학생선발팀=전병건 △연구처 연구개발팀=김성우 △학생처 취업지원팀=유진 △사무처 시설관리팀=김효정 △정보관리실 정보시스템관리팀=공해정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최경진이 임명됐고 경주캠프는 △사무처 시설관리팀=심규택 △정보관리실 정보시스템관리팀=김진철이 임명됐다.

총학, 등록금 납부연기 운동 진행

학생회 “사실상 협의무산”...학교 “행정을 위한 예납조치”

서울캠프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학과4)는 3월말까지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방학중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등록금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지난달 16일 학교에서 13%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학사행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위안담이 아닌 예납임을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회측에서는 “1만 2천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2000년 등

등록 동결을 위한 납부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고지서가 예년 보다 늦게 발부되고, 등록료도 낮음에 따라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오는 11일로 연기됐다. 경주캠프 학생대책위원회(위원장=정재훈·인문대 학생회장

이하 학대위)는 지난달 16일 중앙학대운영위원회를 거쳐 등록금 고지서 발부 연기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17일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학대위는 민주납부와 납부연기에 동참을 권하는 유인물을 각 학생들에게 발송했다.

한편, 등록금 인상과 관련 송석구 총장과의 간담회가 지난달 28일 총장실에서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에 경주캠프 학대위는 납부연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10일로 연기됐다.

대학부

본사사령

◆ 임기만료

- △편집장 겸 문화부장 =김미경(문과대 문예창작4)
- △편집부장 겸 문화부장 =황성규(법정대 국제관계4)
- △대학1부장 =유철주(문과대 사4)
- △대학2부장 =장희정(상경대 경제4)
- △사회부장 =남대철(정산대 정보통신4)
- △기획부장 겸 광고부장 =박영실(사과대 사회4)
- △학술부장 겸 여론부장 =박양우(법정대 국제관계4)

◆ 신입부장

- △편집장 겸 사회부장 =김진이(사과대 사회3)
- △편집부장 겸 대학부장 =김미영(인문대 국문3)
- △문화부장 =최은진(문과대 영문3)

린봉, 구홍화(중어중문3) △키르키즈스탄 국립대학=스베타(인문과학1)로 총 8명이 입학했다.

한편 일본과 키르키즈스탄 교환학생은 내년 2월까지 대만 교환학생은 내년 8월까지 수학한다.

동국예술단 국제페스티벌 참가

지난 4일 한국대표로 호주 캔버라에

경주캠프 국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국예술단(단장=박상진·국악)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국제 다민족 페스티벌(Canberra National Multiculture Festival)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

동국 예술단은 지난해 일본 나라시 초청으로 나라시 탄생 1백주년 기념 및 문화회관 준공 기념행사

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바 있다. 호주 정부와 수도 캔버라 및 각종 기업과 지역 단체들의 지원과 후원으로 개최되는 국제 다민족 페스티벌은 연례행사로 지난 98년과 99년에도 전세계 17개국이 참가해 공연을 가졌으며 동국 예술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해외자매대 교환학생 입학 2일부터 양캠프 총 8명 수학

2000학년도 해외자매대 교환학생이 지난 2일 본교에 입학했다.

이에따라 선발된 교환학생은 서울캠프에서 △일본 불교대학=카네시로 시게나리(사회4), 진노 야요이(사회3) △일본 용곡대학=장순희(일어일문4) △키르키즈스탄 국립대학=울가(문과대1) 경주캠프에서는 △일본 용곡대학=이시이 카즈야(국문학2) △대만 중국문화대학=왕

지면안내

☞ 독도, 우리땅 맞아? 4면



지난 1일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독도 주권 수호 3·1 결의 대회'와 한·일 기업협정을 통해서 본 독도의 역사를 알아본다.

☞ 김용욱 선생의 불교이론 비판 9면

☞ 한·일 영상교류포럼을 다녀와서 10면

☞ 오늘날의 페미니즘을 진단한다 11면

보리수

참회와 용서의 화합

윤정광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부처님께서 코삼비에 계시 때, 비구들이 이쪽 저쪽으로 의견이 엇갈려 심히 다투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서는 양쪽 비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 이렇게 타일었다.

“비구들이야, 그대들은 여래의 계율에 따라 머리를 깎고 출가한 사문이 아닌가? 아무쪼록 잘 참고 견디며 자비에 의해 밝게 화합해야 한다. 부디 다투지 말라. 이 이상 화합을 깨뜨리지 말라. 서로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시비를 가리지 말라. 물과 젓이 합한 것처럼 화합하여 살면서 한 스승에게 같이 배우면 여래의 법 안에서 이익을 얻고 안락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늘 화합과 자비를 강조하셨고, <법구경>을 통해서도 다름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괴로워 누워있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름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 사람이 먼저는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는 삼가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능히 이 세상을 비추리. 달이 구름에서 나오듯이...”

한국불교의 대표종단 조계종이 종권다툼을 둘러싸고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았던 것도 이제 해를 두 번 넘기면서 차차 그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다. 그 동안 고산스님을 거쳐 정대스님이 총무원장을 맡으면서 종단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종권분규도 패자(敗者)가 되었던 수많은 수행자들이 벌빚, 제적, 공권정지 등의 가혹한 징벌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천년이 열리지도 어언 석달째인데, 자비와 화합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불교종단에서 어찌 참회와 용서가 없을 수 있는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종단분규에 패자가 되어 가혹한 징벌을 받은 수행자들에게는 대사면을 베풀어 참회와 용서가 함께 어우러지는 포근한 봄을 맞았으면 좋겠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보냅시다

나날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바로 그 사람, 나를 걱정하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불현듯 떠올라 내일을 향해 바로 씩니다.

이제는 모두들 잊어간다는 생각에 못내 서운한 맘 달랠길 없을 때 나의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 동안 쌓인 섭섭함을 털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하여 모든 사람을 미워하려 해도 바로 그들, 친구들의 사랑이 밀물처럼 가슴으로 밀려와 그 동안 쌓인 미움들 씻어내고 다시 내 앞의 모든 이를 사랑하기로 합니다.

아프고 서글퍼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들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 봅니다.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친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정성스러운 편지 한 통이 친구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1학기 수강신청확인·정정 실시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는 내일(7일)부터 8일까지 200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을 실시한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은 교학과, 학과에서 확인인을 배부받아 확인하고 정정사유가 있을 때는 PC로 정정한후 정정원을 작성해 교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장소는 학내 컴퓨터실습실이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국대 컴퓨터실습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한편 학외에서 원격으로 수강정정과 확인을 하려면 학교홈페이지 접속후 학부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실행해야 한다. 원격수강 정정 및 확인 시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9시까지이다.

1학기 특별시험 오는 11일 치러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는 신입생들과 1학년 복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2000학년도 1학기 특별시험을 치른다.

오전 9시부터 치러질 이번 시험은 오늘(6일)부터 8일까지 본관 학사지원실에서 원서접수를 받는다.

시험과목은 △컴퓨터의 활용과 실습 △실용영어1 △영어회화1이며 각각 1학점씩 최대 3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합격한 과목에 한해서는 성적을 부여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16일이며 전형료는 3만원이다.

최규환 동문 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

대의 협력처(처장=한보광·불교학) 발전 기금팀은 지난 2일 최규환(행정·82졸, 전북 부안군수) 동문으로부터 발전기금 1천만원을 전달 받았다.

이날 오전 총장실을 직접 방문한 최규환 동문은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비쳤다.

이와 관련해 발전 기금팀의 한 관계자는 "학교발전을 위해 교직원과 동문들을 통합해 더 많은 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새내기 새로배움터 단대별 진행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가 사고로 취소됨에 따라 각 단과대에서는 단대별 새터를 진행한다.

일정을 살펴보면 △문과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소백산 △경영대 12일 중강당 △공과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성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범대 지난 2일 학림관 △사과대 지난달 28일 중강당 △예술대 지난달 24일 90주년기념 문화관에서 이미 새터일정을 끝마쳤다.

전문자격증시대 걸맞는 강좌 신설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프로그램 도입



본관 컴퓨터실습실

정보산업대학(학장=조암·산업공학)에서는 2000학년도부터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도입한 강좌를 신설한다. 이번에 도입한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는 세계 최대 네트워킹 전문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내놓은 것으로 최신판비가 구비된 랩(LAB)과 전문 강사진을 통해 체계적인 네트워킹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스코사에서 인

증하는 네트워크 구성과 관리에 관한 전문 자격증인 CCNA (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CCNP(Cisco Certified Network Professional)와 CCIE(Cisco Certified Internetwork Expert)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와 호남대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시스코사에서 최신판비를 들여와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한 관계자는 "본교의 예산이나 규모가 외국에 비해서도 결코 손색이 없다"고 전했다.

정보통신공학과와 전공과목으로 신설될 이번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라는 강좌가 현재 4학년 과목으로 개설되었고,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강좌가 4학년 2학기에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표준교과과정 내에서는 '인터넷 워킹'이라는 강좌가 2학년 2학기에,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강좌가 3학년 1학기에 개설될 예정이다. 이 강좌에서는 랜(LAN)선의 제작에서부터 네트워크 구성과 관리까지를 이론 50%와 실기 50%의 비율로 1년에 걸쳐 배우게 된다. 대학원에는 대학원 특성화 과정에 CCNA와 CCNP과정을 배우는 네트워크 관리학과가 신설되었다. (표) bluerain@cakra.dongguk.ac.kr

본교 홈페이지 대폭 개선

세계적 도메인인 'edu'도 확보

정보관리처(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는 학교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한다.

다음달 1일 개통 예정인 홈페이지는 디자인의 교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확충해 n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대우개 △동국속식 △학사정보 △대학기구, 단과대, 대학원의 소개 △도서관 관련정보 △사이버도서관 △장학정보 등이 더욱 자세하게 실리며 △교내행사안내 △개인도서대출내역조회 △인터넷정보서비스 △풍어리안 내 등이 새로 실린다. 또한 현재 보

유하고 있는 www.dongguk.ac.kr www.dgu.ac.kr 외에도 세계적으로 쓰이는 edu를 확보 www.dongguk.edu www.dgu.edu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선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그래픽을 보완했다"며 "앞으로 강좌별로 공개하던 성적발표 같은 자료들을 추가로 올려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합동영결식 ... 지난달 21일 미시령 교통사고로 숨진 7명에 대한 영결식이 본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됐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열려

오는 8일 오후 6시 연화원에서

동아리연합회(회장=이승준·철3)는 학생회관 연화원에서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연다.

이번회의는 △회장단 사임후 비대위 재선출 과정 보고 △부상자 방문, 모금운동 등의 새터사고 관련 소식 보고 △동아리 지원금문제 등에 관한 논의 △등록금 동결 투쟁 관련 논의 △보결선거 관련 논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천(한의학)=언론에 발표된 원고들로 단행본 '신장(腎臟)이 강해야 성인병을 예방한다' (도서출판 청송)의 출판 기념회를 본교 문화관 그릴에서 오는 10일 6시30분 개최.

“강의시간 방해 이제 그만”

창업보육업체 입주 ... LAB실 이전 공사완료

방학중 사무처(처장=황영수) 시설관리팀은 모든 강의실의 나무로 된 문에 쪽유리창을 설치했다. 이에 강의시간 중 합부로 문을 열어서 문을 열어 잡고 강의실을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대가 위치하고 있던 동국관 2층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신설되어 14개 업체들이 입주하였으며, 해화관 1층으로 이전한 언어연구교육원의 LAB실 공사도 마무리된 상태이다. 한편 다항관은 3월말 경, 해화별관은 5월말 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p.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 백승석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press
 편집장 김진아 구독문의: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2000년 봄학기 10주과정 영어특강 안내

영어회화
(beginning, low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강사진 : 풍부한 강의 경험을 가진 동국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원어민 전임교원
 반편성시험 : 2000년 3월 10일 17:00 또는 18:00
 시 간 : (오전) 월화목금 07:40 - 08:50 / (오후) 월화수목금 17:00 - 18:00
 수강료 : 본교생 110,000원, 그외 130,000원(교재 포함)

AFKN 및 CNN 청취반
 강사진 : 원어민이 진행하는 30명 특별 정원반
 시 간 : (오전) 월화목금 07:40 - 8:50
 수강료 : 100,000원
 * 새로운 어학실습실에서 청취훈련 및 듣기 테스트를 통한 이해력 높이기 훈련으로 소수반 학생들에게 productive skills(말하기 및 쓰기)를 익히게도 한다.

나용준의 TOEIC CLINIC(50명 정원반)
 TOEIC LISTENING : (오후) 월화수목금 17:00-18:00
 TOEIC READING/GRAMMAR : (오후) 월수금 18:00-19:20
 수강료 : 80,000원(교재 포함)
 나용준 박사는 현재 언어연구교육원 전임교수로 오를라호마 주립대 영문학 박사이며 영어교수법을 부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New York Academy에서 영어 청취 및 TOEFL을 다년간 강의한 전문 영어강사입니다.

TOEFL LISTENING & Screen English
 EBS 영어강사 Michael LeBlanc이 진행하는 30명정원 영어청취반·Screen(영화) English를 통해 살아있는 영어표현을 익히며 TOEFL 청취력도 높이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영어강좌.
 시 간 : 월화목금(오전) 07:40 - 08:50 수강료 : 100,000원(교재포함)

동국대학교 조선일보 TEPS 어학강좌
 TEPS 시험대비반 : (오전) 월수금 07:30 - 08:50
 강 사 : 우희경 (호주 UTS TESOL 석사출판자로서 현 조선일보 TEPS 강사)
 수강료 : 65,000원(조선일보 Radio TEPS 교재포함)

공통사항
 특강기간 : 2000. 3. 13 - 2000. 6. 2(10주) / 4. 24 - 4. 29(중간고사 시험기간으로 수업 없음)
 접수기간 : 2000. 3. 2일부터
 접 수 처 :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해화관 1층 정보관리실 옆)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어연구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2260-3471/0

언어연구교육원

참사람봉사단 사회봉사 단원모집

2000학년도 봄학기 사회봉사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대상 : 재학생, 교수, 직원
- 신청서 접수기간 : 2000. 3. 6(월) ~ 3. 10(금) '봄학기'
- 봉사활동 기간 : 2000. 3. 20(월) ~ 2000. 5. 31(수)
 - * 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학점인정 : '봄·여름·가을·겨울' 학기 중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시 '사회봉사 1학점 Pass 자유선택'
 - *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 * 학점인정시기 : 2000학년도 1학기
- 접수처 : 동국참사람봉사단(학생복지실 내 ☎ 2260-3049)
- 봉사활동대상단체 : 약 50여개 단체(봉사활동내용 : 400여개 프로그램)
- 예비교육 : 2000. 3. 18(토) 08:20 ~ 16:30 '경기도 광주 향림원'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

대학별 도서관 이용 교육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3. 13	3. 14	3. 15	3. 16	3. 17
오전(10-11-12)	문과 경영	불교 이과	경영 이과	문과 이과	경영 문과 이과
오후(14-15-16)	문과 경영	불교 이과	불교 경영	이과 문과	경영 문과
	3. 20	3. 21	3. 22	3. 23	3. 24
오전	공과 사과	사과 공과	공과 생자	생자 공과	공과 사과
오후	공과 사과	사과 공과	공과 생자	사과 공과	사과 사과
	3. 27	3. 28	3. 29	3. 30	3. 31
오전	정산 사범	사범 정산	정산 예술	예술 정산	사과 사범
오후	정산 사범	사범 정산	예술 경영	정산 문과	경영 예술

교육장소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교육반편성 : 각단과대별로 해당시간
 교육시간 : 1일 4회 매회 50분씩 신청지에 한하여
 오전 10:00 - 10:50 신청기간 : 3. 6 - 10 (5일간)
 11:00 - 11:50 신청장소 : 중앙도서관 3층 참고도서실, 대리신청 가능
 오후 14:00 - 14:50 1회 : 인원 30명 선착순, 기념품 증정
 15:00 - 15:50

중앙도서관

서점운영안내

- 교재 판매 장소
 - 가. 강의동 J 101 : 공과대학, 사범대학, 이과대학, 정보산업대학
 - 나. 해화관 2층 : 신입생 교양과목 교재, 경상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명지원과학대학, 문과대학, 불교대학, 예술대학, 야간강좌, 전산원 교재 등
- 영업시간
 - 가. 2000. 3. 2. - 2000. 3. 24. → 08 : 00 - 22 : 00
 - 나. 2000. 3. 26. 이후 → 정상근무 (08 : 30 - 20 : 00)

생활협동조합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단

등록금 인상보다 국가교육재정과 재단전입금 확보 우선돼야

국민들은 여전히 IMF

사립대학들이 2000학년도 학생등록금을 전년대비 9%~15% 인상시켰다. 이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으로 최근 몇 년간 사립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어 재정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올리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의 이 같은 처사는 명분이 없을뿐더러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IMF 관리체제가 끝났다고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환 위기 이후 중산층이 68%에서 64%로 줄어들었고,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0%대로 올라갔으며, 99년 3·4분기 기준으로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5.3배에 달해 97년 같은 분기의 4.5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까지 IMF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IMF속에서도 이득을 남긴 사립대학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국민적 고통과는 달리 IMF 관리체제하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챙겼는데 98년 한해동안 무려 7,428억 원(법인 2,986억, 대학 4,645억, 내부거래 제거203억)의 이월·적립금을 남겼다. 이들은 지출예산을 뺀뒤기 하거나 수입예산을 축소 편성하여 차액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때문인지 사립대학은 98년 한해동안 자산이 2조 9,357억원이나 증가했으며서도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은 18.0%로 오히려 낮아졌다. 하지만 운영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97년 7.0%에서 98년에는 5.6%로 낮아졌으며,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투자 역시 삭감시켰다.

수혜자보다 원칙을 강화하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한편,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수혜자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있는 김대중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기인한 바 크다. 김대중정부는 집권 이후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비 부담에 대한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집권 이후 시장경제논리에 따른 교육정책으로

대학간 차등지원을 강화하고, 온갖 종류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사립대학들이 BK21사업이나 각종 평가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며 정부에 학생 등록금 인상 자율화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기부금 입학에 공문화 시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부는 집권 전 국가 교육재정을 GNP 대비 6%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집권 2년이 지나면서 이를 공식 폐기하고 2000학년도 교육예산을 GNP 대비 4.1%로 낮추었다. 김대중정부는 물론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1조 4,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며 큰 생색을 내고 있으나 이는 모두 초·중등학교에 투자될 예산이며, 이렇게 했을 때도 GNP 대비 국가 교육재정 확보율은 4.38%에 불과하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방침 철회해야

사립대학들은 지금이라도 등록금 인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전입금 확충을 통해 법인의 역할을 높이든지 이월·적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립금을 인출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자신들이 이득 보려는 본 모습을 숨긴 채 대학발전을 위해 이월·적립금을 인출하여 투자할 수 없다는 거짓말은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김대중정부도 교육부총리제니, 지식정보화사회니 하는 말장난 같은 '수사학'보다는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시장논리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과 개별대학의 이익보다는 대학공동체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교육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사학법인에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이 같은 요구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미시령 사고가 주는 교훈

개강과 함께 00학번 새내기들의 입학으로 교정은 예년과 다름없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한 편으로 우리는 지난 2월 17일 미시령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7명과 병원에서 치료중인 우리의 동료 학생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들의 어이없는 죽음과 사고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희생되어야 했는지 반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의 동료 선후배의 곁을 떠난 그들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자. 대학을 단순하게 취업준비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말자. 참다운 나를 찾는 분주한 노력과 나보다는 주위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대학은 더욱 대학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을 충실히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각종 M.T.와 외부행사가 각 학교, 동아리별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입생, 복학생 환영회라는 이름으로 무절제한 음주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탓에 빚어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목격한 바 있다.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문제의식 없는 맹목적인 따라하기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2의 미시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들뜨고 헤이해지기 쉬운 학기초를 차분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대학생이 되면서 각자가 자기 행동의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중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곁을 떠난 황근열, 사현경, 김학운, 박현아, 김정태, 김정은, 이영훈의 죽음에 애도를 거듭 표하며 부상당한 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간담회가 가지는 의미

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는 음성 또는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것, 그리고 어떤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말은 서로간의 생각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대화가 되었건 강의 되었건 서로 마주한 상태에서 쓰인다.

그러나 경주 캠퍼스 학생회가 우려포럼 끝에 성사시킨 등록금 인상관련 총장 간담회에서는 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

총장과 학생회 측과의 간담회는 분명 등록금 인상이라는 사안에 대한 풀이를 목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물론 대화의 고리가 보이지 않아 어떠한 성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측은 등록금 13.2%인상 근거 요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강연하듯 일방적으로 하였고, 이와는 무관한 대중제 때의 행사지원과 생맥주 10통 제공이라는 보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측의 일방적인 설명만 진행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는 당초 그들이 결의했던 생각들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간직만한 채 간담회를 마쳤다.

학생과 총장과의 간담회의 분위기가 냉랭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학생회가 학교 당국이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큰 오산이다. 하지만 상대가 있는 간담회 또는 협의 과정에는 치밀한 전략과 대응논리로 상대방 이문을 깨뜨릴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예상한 바와 같이 결국 학생회 측이 간담회를 통해 얻은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 서로간의 대화가 없었던 간담회때문에 전체 학생·학부모들이 부담을 떠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로 인해 학생회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학생회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학교측도 학교 당국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직도 여러 가지 구실로 학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만 같아 씁쓸하기 만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 의약분업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처방전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구현 기대

“의약분업,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회·시민사회단체·의사·약사들의 오랜 논란과 합의 끝에 실시할 예정인 의약분업은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 상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미루어져 왔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되었으며 지난 1999년 12월 7일 국회약사법안이 확정됐고 올 7월 1일 시행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이며 이의 궁극적 목적은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민 알 권리의 회복이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료제도때문에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으로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을

이 선진국의 5~7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도 외국의 경우에 비해 3배나 높다.

앞으로 시행될 의약분업의 취지도 여기에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처방전’이 공개되고 다른 전문가에 의해 점검되는 과정을 거쳐 불필요하게 오·남용됐던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의약품 사용 형태가 바로 잡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가 자기 처방전을 보면서 ‘소비자’의 권리로 의료행위를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분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이 제도의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앞둔 지금 곳곳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종전과 달리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 방문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처방전 없이 약도 못 먹느냐’, ‘의료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는 불평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약을 타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던 것을 생각한다면, 병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타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지불하던 의료비를 병·의원과 약국에 나누어 내면 되기 때문에 진료·약제비 부담은 줄어든다. 또한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은 예외로 두어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살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느 제도에나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의약분업의 의도와 취지는 옳으나 우리 생활에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을 야기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잘 시행한다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지는 의료제도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약분업 시행은 ‘소비자를 위한 의료제도’를 만드는 ‘초석’인 동시에 ‘선진의료제도’를 정착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영>

동약로

누가 누구?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부 99학번 000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반도체과학부 99학번 △△△입니다”
이곳저곳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인 무렵,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근처 술집에 모여 앉았다.
이제 자신도 선배에게 약간은 으쓱한 마음에 후배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려고 하지만...
“어! 신입생 아니세요?”
“그쪽이야말로 신입생 아니세요?”
“.....!”
“이런! 누가 동기이고, 누가 후배인지...!”
우리학교는 2000학년도부터 모집단위 광역화를 실시함에 따라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단과대별로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에 학부제 안에서 발생했던 소속감의 결여나 선·후배, 동기간의 어색한(?) 관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모집단위 광역화가 된 지금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모집단위 광역화의 확정여부를 놓고 문과대 학생들의 학장실 점거농성 과 인문학부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들의 무기한 단식투쟁 등 모집단위 광역화 계획안의 전면철회를 위한 거센 반발이 계속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결코 '기초학문분야의 위기'나 '학력인플레 현상'과 같은 거창한 것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내선·후배, 내 동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추구하는지, 그런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싶은 소박한 바람들도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
eunsun@cakra.dongguk.ac.kr



“이사부 장군님 못난 후세들이 일냈슈”

공동관리에 들어간 독도 ... 주권의 반 사실상 일본으로 넘어가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지금 이 노래의 가사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독도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정오 장충단 공원에서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 주권 수호 3·1결의 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지난 1998년 3월에 맺어진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주권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독도주권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조재현(29)씨는 지난 1월 1일 독도 해돋이를 보러갔다가 독도 수비대들에게 쫓겨 나온 상황을 얘기하며 울분을 토했다. “울

릉도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쪽 주민들도 접근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독도수비대원들이 '발포하겠다'고 까지 한답니다. 이렇고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참가 했습니다.”
정부의 어불성찬 태도로 맺어진 '신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조선시대에 '안용복의 대일외교 답관'으로 얻은 '영구적인 독도주권'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현재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에 포함시켜 '공동관리수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독도주권의 반이 이미 일본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시민단체들은 잃어버린 반쪽 독도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도주권 수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1일에는 새천년맞이 독도탐사단이 '독도주권 수호행사'를 독도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독도 수비대의 저지를 받고 무산되었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독도 사수운동'에 대해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합의로 풀리지 말라”고 할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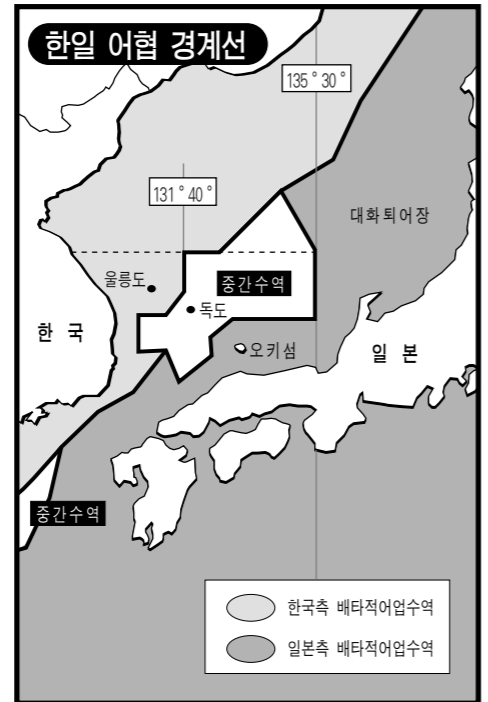
지난 1997년 1월 우리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선포' 때문에 우리 어민들을 납치해가는 일본정부에 말발린 항의만 할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으며 납치당한 어민들은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석방금을 주고난 다음 풀려났다. 울릉도의 한 주민은 “현재 일본 경비선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우리 어선들을 검문 하기도 했다”고 한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본의 '망언'으로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뒷걸음질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답답해 한다. 일본의 주장에 대해 '신 한·일어업협정 개정' 등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계속되는 전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독도는 내가 지킨다”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독도주권 수호대회'에 어린 이들의 표정이 매우 진지해 보인다.

독도는 우리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영토이며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땅이다.
〈영〉

한·일어업협정으로 본 독도의 역사
일본의 끈질긴 재협상 요구 ... 약해진 우리의 독도 주권



독도는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신라로 복속시키면서 우리의 영토가 되었으나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를 노려왔다. 하지만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의 대일 외교 답관으로 일본 정부는 영구적인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일제시대를 거쳐 1946년 6월 '일본의 어업허가구역(백아터라인)' 지정과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발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밝혔다.
그러나 1982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해양법이 채택됨으로써 한일 양국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맞는 어업협정이 필요하게 됐다. 일본은 감소하는 어민과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에 대비하여 어업 구조 개선에 들어갔으며 1994년 2월 한국 측에 어업협정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1996년 2월 일본은 독도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해 5월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7년 1월 일본은 일방적인 '직선기

선'을 선포, 일본이 일방적으로 확장한 일본영해에 들어오는 한국어선을 나포하였다. 1997년 3월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과 어업협정 개정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1997년 10월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과 어업협정 개정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울릉도와 오기섬 사이의 중간선 주장을 포기하고 일본의 '잠정적 합의수역' 주장을 인정한 셈이 됐다. 1998년 1월 일본은 65년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파기하고 1998년 3월 신 한·일어업협정의 협상을 재개하였다.
1998년 9월, 한·일 외무부장관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공식 조인하였고 중간 수역에 독도를 포함, 일본측의 처음 의도대로 타결됐다. 1999년 1월 어업협정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함으로써 독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함으로써 독도의 권리 50%를 포기했다. 게다가 어머머한 제주도 앞 바다까지도 일본에 고스란히 넘겨주게 됐다.
〈영〉

3·1 유권자 독립선언의 날
“유권자 독립만세”

총선연대 공천무효·선거법개정 촉구
부패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선언



지난 3월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된 '3·1 유권자독립선언의 날'에 시민대표로 참가한 33인의 모습.

1919년 파고다 공원에서 선인들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치며 목숨을 내놓고 독립선언을 결의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는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주최로 '3·1 유권자 독립선언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이는 81년전에 있었던 3·1 독립기념일을 재현한 행사로써 부패정치권으로부터 유권자가 독립하여 정치개혁과 선거혁명을 이루자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진행된 독립선언은 종교계, 법조계, 학계를 비롯하여 시인 고은, 박노해, 만화가 박재홍, 탤런트 유인촌 등 각계 33인 시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무효와 선거법 재개정 촉구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유권자 독립선언문과 공약 3장 발표를 통해 “이땅의 시민 하나하나의 의지가 이 나라의 역사 개혁의 근간임을 깨달아 세상을 놀라게 할 총선혁명을 실천하자”고 촉구했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번 총선운동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이 운동은 지난 7·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오늘날 우리 시민 의식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 되어 가능했다”라며 보다 완전한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 시민대표 33인은 안중근 의사 손바닥 이미지 배경에 손도장 찍기를 하고, 끝으로 '2천년 유권자 독립선언'을 선포하며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독립만세를 외쳤다.
한편, 총선연대는 유권자 독립선언 행사에 이어 지난 2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정치개혁 국민광장'이란 이름으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지도부와 사무처 간부 30여명이 모여 △밀실공천 반대 △철새정치 반대 △지역정치 추방 △부패정치 심판 등을 내걸고 오늘(6일)까지 시한부 농성에 들어갔다. 이 기간동안 행진, 모금, 가두서명, 정치개혁토론회, 정치풍자 만화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선연대의 김규철(시민의 신문·홍보실장)씨는 “부패 정치인 추방과 민주적 정치개혁을 위한 공동대표단'과 시민과 간담회를 열어 시민의 정치참여 의식을 높이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총선연대는 '공천무효 확인소송 원고인단 모집운동'과 '밀실공천 철회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영〉

2000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김애주(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임강사)
 · 본교 영문학 졸
 · 본교 영문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영문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및 경희대 강사
 · 미국소설 전공



▲조 국(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 서울대 법학 졸
 ·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 취득
 · California대(Berkeley) Criminal Law & Procedure 박사학위 취득
 · 전 울산대 사회과학부 조교수
 · 형사법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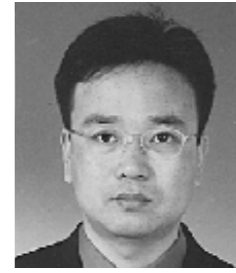
▲임준태(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
 · 경찰대 법학 졸
 · 연세대 사법공안행정 석사학위 취득
 · Freiburg대 경찰학/범죄학 박사학위 취득
 · 전 경찰대 경찰학과 겸임조교수
 · 경찰학 전공



▲이호규(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
 · 연세대 신문방송학 졸
 · Indiana대 Tele-Communication 석사학위 취득
 · Indiana대 Mass-Communication 박사학위 취득
 · 전 연세대 언론연구소 전문연구원
 · 뉴미디어론 전공



▲곽노선(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 서울대 경제학 졸
 · 서울대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 Rochester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전 Texas(A&M)대 조교수
 · 거시경제학 전공



▲임성만(경영대학 정보관리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경영학 졸
 · American대 Computer Science 석사학위 취득
 · George Mason대 Information Technology 박사학위 취득
 · 전 쌍용정보통신(주) 차장
 · 경영정보 전공



▲이지호(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토목공학 졸
 · 서울대 토목공학 석사학위 취득
 · California대(Berkeley) Civil Eng. 박사학위 취득
 ·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전문위원
 · 구조해석 전공



▲김홍일(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 한양대 건축공학 졸
 · 한양대 건축공학, 파리 10대 예술사 석사학위 취득
 · 전 위드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장
 · 건축설계 전공



▲이재섭(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건축학 졸
 · 서울대 건축학 석사학위 취득
 · 서울대 건축학 박사학위 취득
 ·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건축시공 전공



▲임민중(정보산업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전자공학 졸
 · Wisconsin-Madison대 Electrical Eng. 석사학위 취득
 · Wisconsin-Madison대 Electrical Eng. 박사학위 취득
 · 전 삼성전자 System LSI 선임연구원
 · 멀티미디어 통신 전공



▲이동훈(예술대학 연극학과 전임강사)
 · 본교 연극영화학 졸
 · New York 시립대(Brooklyn) Theater 석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겸임교수
 · 극장기술·연출 전공



▲문원립(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공영화학 졸
 · Temple대 Radio-TV-Film 석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겸임교수
 · 영화제작 및 연출 전공



▲김성현(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치의학 졸
 · 본교 인도철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인도철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강사
 · 대승불교(종관학) 전공



▲이형환(불교문화대학 국악과 전임강사)
 · 서울대 국악 졸
 · 중앙대 음악학 석사학위 취득
 · 전 대구예술대 조교수
 · 국악이론 전공



▲남은식(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전임강사)
 · 경북대 전자공학 졸
 · 경북대 전자공학 석사학위 취득
 · 경북대 전자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데이터 통신 전공



▲오동석(법과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법학 졸
 ·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 취득
 · 서울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방송통신대 강사
 · 헌법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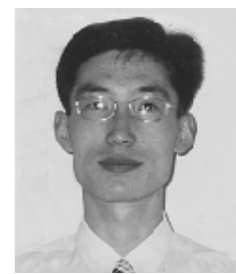
▲김홍범(법과대학 행정학과 전임강사)
 · 본교 행정학 졸
 · Eastern Washington대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 Southern California대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강사
 · 행정조직론 전공



▲장길상(상경대학 정보산업학과 전임강사)
 · 울산대 산업공학 졸
 · KAIST 경영정보공학 석사학위 취득
 · KAIST 경영정보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울산대 겸임교수
 · MIS 전공



▲서은오(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한의학 졸
 · 본교 한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경주함방병원 전임의
 · 한방내과 전공



▲김동연(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한의학 졸
 · 본교 한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우석대 전임강사
 · 한방부인과 전공



▲최화(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 한의학 졸
 · 경희대 한의학 석사학위 취득
 · 경희대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포천중문대 의학과 전임강사
 · 오관과 전공



▲박수경(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경북대 의학 졸
 ·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학위 취득
 · 서울대 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산재의료원 정선병원 산업의학과장
 · 예방의학(역학) 전공



▲권태환(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경북대 의학 졸
 · 경북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경북대 의학 박사과정 수료
 · 전 덴마크 Aarhus Univ. 연구원
 · 생리학 전공



▲손인기(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중앙대 의학 졸
 · 중앙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경주병원 임시직 전문의
 · 정신과 전공



▲송창진(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영남대 의학 졸
 · 영남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경주병원 임시직 전문의
 · 정신과 전공



▲박은근(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의학 졸
 · 서울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경주병원 임시직 전문의
 · 이비인후과 전공



▲나대연(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 의학 졸
 · 경희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경희대 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서울중앙병원 심장내과 전임의
 · 내과(심장학) 전공



▲김성자(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졸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의학 박사과정 수료
 · 전 포항병원 임시직 전임의
 · 내과(호흡기 내과학) 전공



▲김태훈(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경북대 의학 졸
 · 경북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피부과 전공



▲김미운(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고려대 의학 졸
 · 고려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포항병원 임시직 전임의
 · 마취과(통증관리) 전공



▲김형순(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연세대 의학 졸
 · 연세대 의학 석사 재학중
 · 전 포항병원 임시직 전문의
 · 치아교정학 전공



▲이경우(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의학 졸
 · 서울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서울대병원 전임의
 · 재활의학과 전공



▲김인홍(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간호학 졸
 · 이화여대 간호교육 석사학위 취득
 · 경희대 간호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초당대 조교수
 · 정신간호학 전공



▲한영란(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 이화여대 간호학 졸
 · 이화여대 간호학 석사학위 취득
 · 이화여대 간호학 박사학위 취득
 · 전 경인여자대학 조교수
 ·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이미애(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 방송통신대 경영학 졸
 · 경희대 간호학 석사학위 취득
 · 경희대 간호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춘해대학 전임강사
 · 간호행정학 전공



사회 곳곳에 숨은

‘정치 권위주의’에 맞서는 새바람이 불어온다

비민주적 정치시스템과 기득권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참여요구

비민주적 정치시스템과 기득권 정치세력

우리는 푸코나 알튀세르의 난해한 원서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를 휘감고 있는 일상의 권력과 권위주의를 항상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일상의 권력은 우리를 숨가쁘게 한다. 남성, 나이, 학력 등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의 행사는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에 존재하는 권력을 재생산시키고 있는 좀더 근원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바로 비민주적인 정치시스템과 기득권 정치세력이 그것이다. 허위의식이 재생산되는 내적 동력과 이를 현실로 기정 사실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제도가 한 몫을 이루어 불평등의 악습을 이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를 왜곡시키고 있는 정치치체(政治遲滯)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치권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독려하고 입법 제도화해야 할 정치권은 이미 그럴 자신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은 안중에도 없으며, 자기 당 소속 부패연루 의원의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연이어 소집하더니, 급기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마저 부결시키고는 만세삼창을 연출했다.

부패 연루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기 중 입을 핑계로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정권 시절 술한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형근 같은 이가 자신을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투사로 항변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그러나 이렇듯 혐오스러운 정치권력에 대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쓴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들을 성토했다는 정도다. 한국의 유권자는 차라리 무권자에 가깝다. 선거시기에 후보자를 변별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채, 그만 그만한 후보들 사이에서 한표를 던지거나 아예 보이콧하는 정도의 권리밖에 없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기본권 조차 무시하는 한국의 정치현실

한국 정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어이없음을 넘어, 이대로는 우리 다음 세대에 도저히 물려줄 수 없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지을 수 없다. 작년 가을 40개의 시민단체는 오랜 논의와 준비를 거쳐 “국감시민연대”를 꾸리고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감시민연대 모니터 요원은 국감장에 들어 갈 수조차 없었다.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4개의 상임위 중 9개의 상임위가 방청을 거부한 것이다. 헌법과 국회법은 모든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평가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9개의 상임위원회가 방청을 봉쇄해 버렸다. 결국 국정감사 기간 내내 방청권(알권리)과 평가권(표현의 자유)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야만 했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무시해 버리는 정치권력,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정치 현실이다.

정치개혁의 변화가 일고 있다

이렇듯 정치현오가 극에 달할 무렵 새천년을 맞이한 한국 정치에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으로 예상치 못했던 파란이 일었다.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자, 유권자들은 기나래났다는 듯이 무능부패 정치인 퇴출운동을 열렬히 지지하며 나섰다. 방송 3사는 유례없이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인사 발표 기자회견을 생중계했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악에 합의했던 여야는 여론의 호된 질타에 밀려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개정하는 등 한발 후퇴했다. 5천원, 만원씩 시민들이 총선연대에 보낸 성금은 2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사회 각계의 지지 성명 및 동참이 이어졌다. 새천년 벽두부터 거대한 변화와 희망의 물결이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능부패 정치인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이 80% 이상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16대 총선이 선거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되기에는 아직 많은 위협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치개혁의 위협 요소

총선시민연대의 리스트 발표 이후 정치권, 특히 자민련은 이른바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 자민련은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이 시민단체를 흥위병식으로 이용해 정치권 물갈이를 시도하는 것...보수세력의 숨통을 끊으려는 급진진보세력의 음해이자 공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낡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원칙없이 영입하여 정책도 대안도 없는 무기력한 패거리 정치를 펼치면서도 이를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과 지역감정선동으로 합리화·정당화해온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강력한 정치개혁 요청에 당황해하는 모습과 닮았다. 정치권이 총선연대와 대다수 유권자들의 정치개혁을 향한 자구적 행동을 마치 그 누구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의 운동으로 호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슬픈 색깔시비를 일으켜 낡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정과 비판의 화살을 비껴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다.

청년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필요

일부에서는 낙선운동만으로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인의 부재, 지역감정의 벽 등에 맞서 결국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 진단하기도 한다. 분석적으로는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천낙선운동은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복원하는 완성이 아닌 출발이다. 그렇다면 빼앗긴 불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체 유권자의 60%가 20~30대의 젊은 층이다. 그만큼 청년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한 투표행태를 버리고, 무능부패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것으로부터 정치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적 모순과 가야 할 미래 사회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라는 실천적 과제가 우리에게 지금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바뀌야 한다.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 고여있는 썩은 물을 밀어내고 대체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유권자의 몫이다.

이강준
(총선시민연대 자료조사팀)

권위주의여 가라!

대학문화에 나타난 권위주의

“군사문화의 상징 ‘신고식’이 변하고 있다”

개인의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우리는 참으로 많은 권위주의에 둘러싸여 있다. 이는 일찍이 동방예지국이라 불리며 위계질서와 예의범절을 중요시 여겨오던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세대에 걸친 군사독재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동반자로 온갖 혜택을 받아오며 세계적으로 우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재벌’의 생성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은 저해되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건전한 토론과 논쟁보다는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하였으며, 사회는 막강한 권위를 지니기를 원하는 ‘권력지향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우리사회에 팽배한 성공주의는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선도했던 대학도 얼마 전까지 폭음과 폭력의 군사문화가 난무했다. 동아리, 학생회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조직화 된 곳이면 어디서나 번잡한

위계질서와 예의범절이 가득 했으며, 요즘과 같이 새내기를 맞이하는 시기에는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각양각색의 ‘신고식’이 치러졌다. 대부분의 경우 사발식이나 장생주를 마시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특별히 집단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혹독한 훈련을 시킴으로써 집단의 소속감과 우월감을 심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식문화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인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며 자취를 감추거나 신고식을 치르는 당사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는 방법의 통과의례로 변모하고 있다.

‘제도권 교육의 목은 때’를 토해내기 위해 토할 때까지 막걸리를 사발로 마시는 고려대학교의 신고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토해내지 않아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반강제적으로 진행되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신입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되었던 집단적이고 반강제적인 신고식 문화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우월심과 애착심이 강한 몇몇 학과에서만 독특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 학교의 몇몇 학과에서 실시되고 나서 논란이 돼왔던 신고식문화는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조직구성과 위계구조에서 비롯된다.

사실 올해 새내기들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신고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궁금하다. 대부분이 81년생인 새내기들은 우리사회에 민주화운동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였던 81년에 태어나, 지난 해 교사의 권위에 강한 불만을 갖고 ‘학교붕괴’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사회 권위주의의 한 단면을 드러내 보여준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발전하는 집단이야말로 대학사회에서 추구해야하는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쓸모없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권위주의에 도전한 민중의 역사

한국정치사, 권위주의에 대항한 도전의 역사

사회 각계층의 이해를 수용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한국 정치사는 권위주의 지배 형태의 반복과 재생산이 거듭된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어느 시기에 도 권위주의 지배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힘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는 권위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비한 세력이나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이 없었다면 현 시대에 우리가 거론하는 민주정부는 수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1980년의 봄을 ‘민주화의 불꽃이 타오른 봄’이라 말한다.

18년이라는 기나긴 유신독재체제를 한결같이 유지해 오던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이 이 땅에서 독재 권력의 몰락으로 민주화를 되찾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그에게 빼앗겼던 정부를 되돌려 받고, 비로소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커다란 권리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동시에 각계 각층의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되며,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 도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됨을 살펴볼 수 있다.

‘빛고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알려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시민,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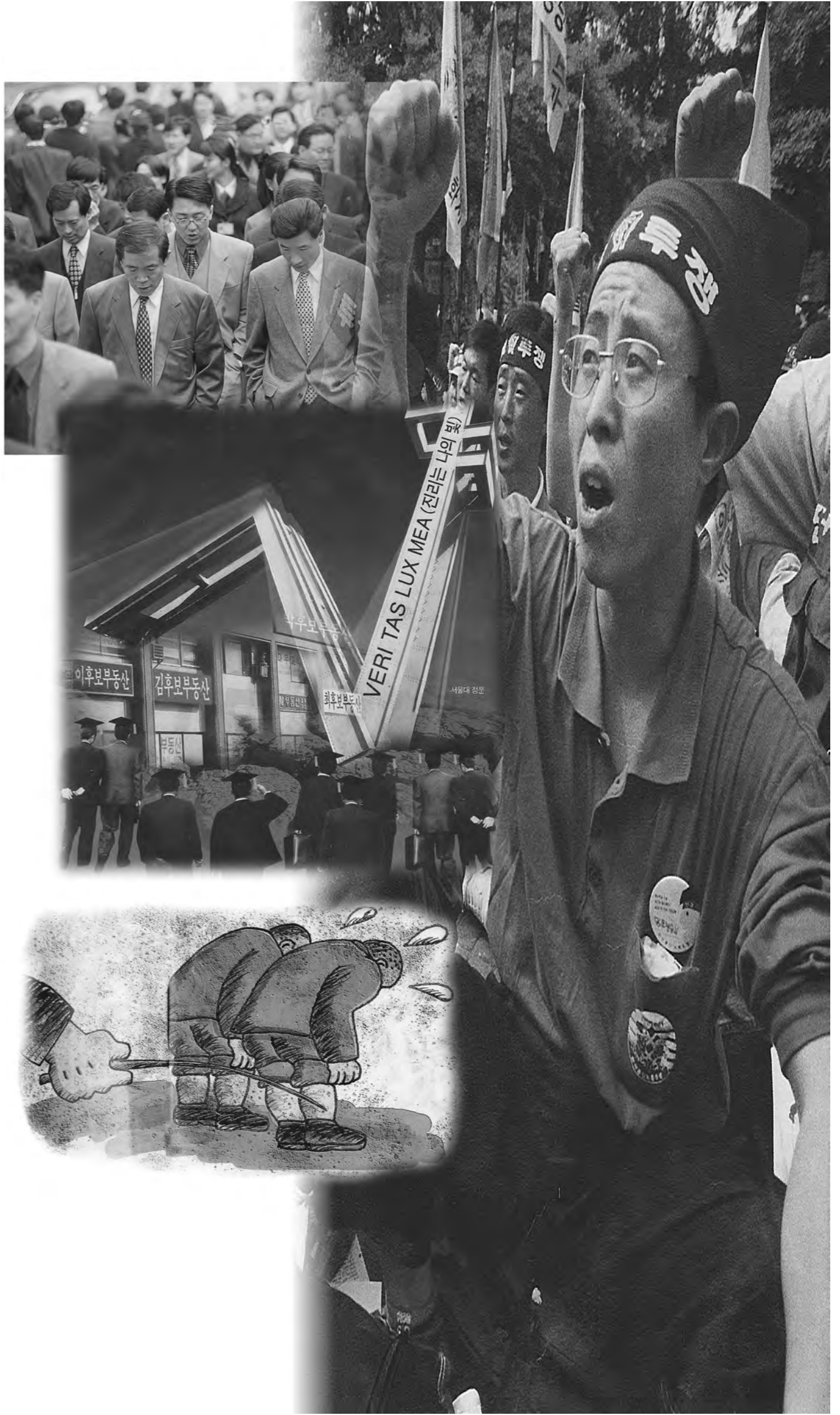
이 반민주적인 독재 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5.18을 잊을 수 없다.

이는 바로 권력 앞에서 수없이 쓰러져간 우리 국민의 지난 과거를 밝혀주는 중요한 역사 교육 자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6월 항쟁이라는 권위에 대한 도전은 권리회복이라는 명분을 유지해나가는데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보스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권위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사례가 된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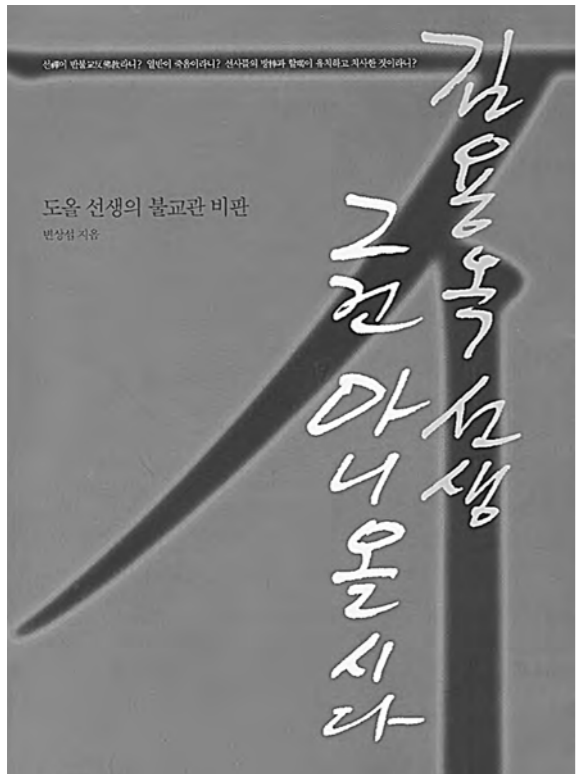


·선()이
반불교()라니?
·일반이 죽음이라니?

김용옥선생 불교관 비판

“김용옥 선생은 도(道)를 알지 못한다”

불교를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노자사상 비판에 앞서

요즘을 도올 김용옥 선생의 노자사상에 대한 강의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책을 출간하니 도올 선생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런 의도에서 이 책을 준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올 선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삼보를 능멸하는 언행에 분개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X대가리가 커서 큰 스님이다?”
“X속단에서 불경을 읽는 취미가 생겼다.”

“이런 것에 답할 수 있는 불교학자는 한명도 없다.”
이런 능력과 수모를 당하고서도 한 명도 도올 선생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도올 선생이 스스로의 무지와 경박함을 깨닫고 입을 다물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책을 내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두 권의 책에 대해서 꼭 바로 잡아야 할 12가지 점에 대해서만 비판하였으나, 어찌 이 점들만이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한마디 한 쪽의 글도 용납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들뿐인데도, 불교학계의 일각에서는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도 없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제 불교가 갈 때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말세

는 말세임에 틀림없습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책의 성격이 비판서이다보니 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만 역공을 당하지 않겠다 싶어서 많은 경전과 논서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논리를 세워 정연하게 설명하였으니 두 세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불교의 대의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올선생의 저술과 강의

여기에서 잠시 21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인간이 처한 존재상황을 살펴봅시다.

인터넷의 세계, 그 어마 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간들은 눈을 잃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양에 반비례하여 인간은 자아를 상실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변화해 가는 세상을 쫓아 살다보니 자신을 돌이켜 볼 시간조차 없으며, 하루 하루 스트레스 쌓이는 일과 속에서 조그마한 마음의 여유조차 갖기 힘든 세상 살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 위기상황에서 도(道)라고 하는 사상이 인간 구원의 메시지로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써도 다하지 않는 (用之不動, 用之不盈)’ 마음의 작용(쓰)을 펼쳐 보여주는 도(道)의 세계야말로 참다운 구원의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즘을 서양에서 선(禪)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를 담고 있는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이 두 구절에 대해서만 어쭙잖은 설명을 늘어놓고 있을뿐 그 뒤의 열 구절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바로 ‘무위자연’의 핵심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번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마디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계 제일의 철학자라고 자화자찬하며, 많은 학자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 1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뒤의 80장은 일상적인 생활의 지혜를 담은 ‘처세훈’ 정도의 의미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제 도올 선생의 무지를 비판하는 책이 나왔으니, 그 분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고 올바른 도의 세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김용옥 선생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부처님제자로서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해왔는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불교의 기초적인 용어의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교계의 현실입니다.

연기설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며, 법(法)이 무슨 뜻이고, 행(行)이 무엇이며, 색(色)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올 선생이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분의 험란한 말솜씨에 현혹되어 ‘와! 대단하다.’라는 신드롬에 빠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계 사상

이제 도(道)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동양의 도(道)라는 것은 인식주체인 인간과 자연사물이라고 하는 인식대상이 합일하는 인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이 바로 ‘무위자연’ ‘물아일여’라는 사상

인 것입니다.

인식주관인 인간의 의식속에서 자의적으로 조작하여 존재사물에 허구적인 인식표상을 부가하는 작위(作爲)적인 인식작용이 없는 것을 ‘무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주관에는 존재사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모습(自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상태는 곧 존재사물(物)과 인식주관(我)이 하나가 되는 즉자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물아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상섭(역경원 역경위원)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다

시대흐름에 걸맞는 사상 창출 필요

현대사회와 정신적측면 접목 가장 중요

매스컴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을 지칭하는 말들은 엔터테이너, 달변가, 폭언가, 장광설 등이 있다. 동양철학이 21세기 기계 문명의 탈출구로 부각되면서 각계의 사람들이 고전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 요즘, 그는 노자이야기로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사실 순수 학문이 빛을 잃어 가는 현 사회에서 그가 원론적 분야를 되짚어 풀어 준 것은 정신적 측면이 메말라 가고 있는 현 교육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의 ‘도’ 사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목소리가 높다. 강의에서 드러나듯 자칫 장황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의 언변이 학계가 생각하고 있는 노자사상에 대한 이해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자사상이 표방하고 있는 담백함 곧 무위를 전달하는데 다각적인 서술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철학적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다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지식 자랑을 위해 노자사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한가지 빼 놓을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이미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것은 그가 내세우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화해 △종교와 종교의 화해 그리고 △지식과 삶의 화해

라는 주제가 사회현실에 호소력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옛날 한 현학자는 대중의 우매함을 논하였으나, 현대에서 대중의 호응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사실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로 생각되어 지기도 한다. 대중의 지지가 단순히 웅변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노자사상을 경청한다. 그의 강의에서 드러나는 거시적 입장에서 철학과, 현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기존의 가치에 대한 고찰, 그리고 무엇보다 노자라는 텍스트가 주는 시의 적절함이 대중의 호응을 얻어 내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 결국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레바퀴는 결코 같은 땅을 구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역사는 두 번 돌아오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바로 사상이다.

여러 가지 ‘실’은 얼마든지 존재 할 수 있다.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의 구분을 떠나 여러 가지 생각을 접해 보는 것이 필요한 때이니 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대 사회와 얼마나 현실 적합성이 있으며, 현대인에게 부족한 정신적 측면을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해 본다.

정미혜 기자
kai@mail.dongguk.ac.kr

학술단신

‘사이버 테크노마트’ 개최

과학기술부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을 돕고 기술 집약적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사이버 테크노마트(Cyber TechnoMart)’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총 100~200개 규모의 기술과 제품을 전시할 사이버 전시회의 참가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경주캠, 초청 세미나

의학연구소(소장=김두희·예방의학)는 오는 8일 오후 4시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는 3층 대학원 세미나실이며, No-c GMP Signalling in CNS of Mollusc, Aplysia californica라는 주제로 강사는 고해영 박사이다.

참가대상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국공립 연구 기관과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기업(예비벤처 포함) 등이며 신청마감은 오는 11일까지다. 사이버 테크노마트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대학 벤처 기업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신기술 창업 지원단(인터넷 주소: htvc.kaist.ac.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기관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전시대상 기술과 제품은 200개 내외다.

컴퓨터 활용능력 세미나

(주)영진.com(영진닷컴)주관 컴퓨터활용능력 필기시험대비 최종점검 세미나가 오는 3월25일(토) 13시부터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접수는 당일 가능하며, 사전예약자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주의 명소

경주시 황남동에 위치한 황남빵의 본가를 찾아서...

학교 앞에서 41번 버스를 타고 대를인 앞에서 내리면 길 건너편으로 딸찌감치 황남빵 본점이 보인다.

시원한 톱 유리문 안으로 항상 끊이지 않는 손님들과, 카운터 너머 빵 제조 과정이 훤히 보이도록 제작된 이 가게에는 낮은 원목 통나무 의자와 유리 탁자 그리고 단정하게 자리잡은 십 수 개의 화분이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어느새 60여년의 역사를 지니게 된 이 황남빵은 1939년 경주의 최영화옹이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99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경상북도 1지역 1명품 가운데 당당히 경주의 명품으로 자리 매김 하기에 이르렀다.

경주 황남빵이 이토록 각광을 받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옛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 수작업 체제, 인공 감미료 및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곡산재료 사용, 이 외에도 밀가



황남빵...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어 60년 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얻어낸 작품으로 먹을 거리가 풍족하지 못했던 역사의 애환이 서린 국민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루 반죽 30% 팥소가 70%인 비율 등이 황남빵의 맛을 결정짓는 포인트이다.

물론 팥앙금 역시 이 가게 안에서 만들어진다. 팥을 세척하고 삶고 으깨어 앙금을 받아내면 또 다시 그것을 끓인다. 그리

고 앙금이 다 식어 적당히 굳어져야만 겨우 황남빵에 사용되는 팥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모두 5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이후로는 비율에 맞게 배합된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그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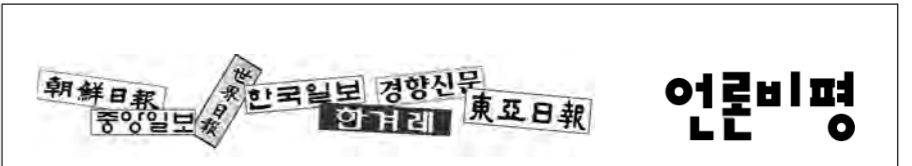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팥소를 넣고 등금에 빚어낸 다음 마지막으로 황남빵에 국화모양의 스템프를 찍어 모양을 낸 후에 구워낸다.

맛 구워낸 황남빵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 식욕을 자극하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적당한 당도 덕분에 쉽게 물리지 않아 단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지난 경주문화엑스포에 맞추어 커다란게 분점을 낸 황남빵 본가는 이러한 맛과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 더 이상의 분점은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대신 홈페이지(주소:www.hwangnam.co.kr)를 개설해 주문판매 형식을 유지하는 등 황남빵을 찾는 손님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두드러진 황남빵의 명성을 이용해 유사식품을 만들어 내는 가게가 많이 생겨나 사람들이 속이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대 학생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경주의 맛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정미혜기자
kal@mail.dongguk.ac.kr



공천 발표 이후의 언론을 살핀다

유권자 빠진 공천보도 공정성 결여

각 당의 공천 발표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유권자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들 비롯,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밀실공천, 당선위주 인물선정, 1인 보스체제 강화 등의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각 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언론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민단체 못지 않게 비판의 강도를 높였고 각 신문별로 한나라당의 평가에서는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중앙일보는 '공천개혁은 헛구호였나' (2월 18일자)에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 '사적이고 맹목적인 충청도가 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져 유감'이라고 하며 개혁성을 기준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보수적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동아일보는 총선연대에 대한 '거리두기 보도'를 한바 있으나 '공천혁명' 기대 저버렸다 (2월 18일자)에서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는데 그 동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총선연대의 입장을 비중있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머지 신문들도 대체로 비판적이었으나 이를 차분히 분석 정리한 경향신문은 '개혁' 퇴색한 민주당공천 (2월 18일자)에서 '현실정치의 필요성에 굴복한 것'이라 했고, 같은날 한겨레 신문은 '실망스러운 민주당 공천' (2월 18일자)에서 '호연장담하던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다만 수도권에 넓고 참신한 인물들이 다수 공천을 받은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개혁적 기준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조선, 중앙일보의 한나라당 공천문제에 대한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명분과 정치력 사이' (2월 22일자)에서 '개혁공천'이며 '인적청산을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지지 시각을 드러냈다. 대체로 평가다운 평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중 비판적 시각을 놓치지 않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그리고 동아일보만이 사실과 칼럼을 통해 이를 비판했을 뿐이다.

특히 경향신문은 '제4당' 창당의 대의명분 (2월 22일자)에서 '밀실, 하향식 공천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 대해 이회창 총재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밀실공천이 부른 후유증' (2월 21일자)에서 '현재 공천을 발표한 어느 정당도 형식적이지 않으나 공천과 관련 경선을 통해 지구당黨員들의 뜻을 수렴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당연히 낙하산, 밀실공천일 수밖에 없었다'며 여야 3당의 공천을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이 공천심사과정에서 밀실공천 등 민주당의 문제를 주로 비판한 채 한나라당의 계파간 갈등 등은 보도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한나라당의 공천결과와 신당의 움직임은 예견되지 않았던 일이고 이후 선거 구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전망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은 선거의 일차 단계인 공천보도에서 선거주체인 유권자들을 배제한 채 철저히 정치권의 흐름을 쫓는 데 비뚤다.

이러한 정치권 중심의 선거보도가 지나쳐 국민들은 단지 구경꾼으로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동대신문모니터팀

오늘의 길

이상희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부 2)

"정당,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가 중요..."



이상희

동당 학생위원회(준) 이하 민노화)양을 만났다. 보라빛으로 여러가닥 물들이 머리카락의 발랄함만큼이나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녀는 본교 민노화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99년 11월에 민노동당을 처음 알게 됐어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민중들의 삶을 보장하고 그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진보적인 정치노선에 심분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노동당에 가입하게 됐어요."

타 학교에는 민노학이 건설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본교에도 민노학을 건설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이상희양은 뜻이 맞는 친구들과 지난해 11월부터 건설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민노학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세미나 등을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10명 안팎이에요. 아직 홍보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민노학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자기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학생들이 정당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치기 때문에 학생들과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한다.

"한 친구가 '학교에서 어떻게 정당운운하는 정치성행사를 할 수 있어'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이 뚜렷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하는 것에는 반대해요. 정치성을 띠고 있어야 자신의 의지대로 의견을 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구요."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민노동당 지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

"민노동당도 하나의 이익단체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단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이익가지가 더 큰 것이죠." 민노동당이 기존 보수세력과 달리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열심히 하는 이 시대의 학생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bluein@cakra.dongguk.ac.kr

경주캠 학생상담실

홈페이지 개설

2000년 새 봄을 맞이 하여 학생상담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통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상담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이나 심리검사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mail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cc.dongguk.ac.kr> 또는 <http://www.k.dongguk.ac.kr/~scc입니> 다.

또한 오는 17일까지 방문, 전화, pc를 통해서 집단심리검사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장소 : 원효관 2층 A207 맞은편 학생상담실
- 전 화 : 0561)770-2051

의학상식

스트레스란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내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자를 모두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발전의 기회도 없다고 하겠다. 또한 어린이가 친구들과 놀면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학생들이 학업이나 입시에 대해 갖는 스트레스, 직장인이 가지는 업

영세민 무료 심장병 수술

오는 10일까지 접수

경주시 보건소(소장=김미경)는 오는 10일까지 영세민을 대상으로 '무료 심장병 수술'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병의 심각성, 가정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선별되어 실시되는 이번 무료수술의 혜택은 지난해 12월에 치른 무료 심장병 정밀검사에서 병의 유무가 확인 된 사람과 기존의 심장병 환자들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신청시 △영세민 카드 △생활보호대상자 서류 △재산세, 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 영세민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번 무료 심장병 수술은 구세군 대한본영의 후원으로 국립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흔하지 않은 기회이니 만큼 되도록 많은 사람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현 (경주병원 신경정신과)

스트레스

무에 대한 스트레스, 장년들의 가정이나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노인들의 소외감과 경제적인 스트레스 등 인간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를 가지게 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있을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발전의 계기가 되겠지만, 부적절하게 대응할 때는, 직접적으로는 자율신경계나 신경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떨어뜨리며, 간접적인 효과로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약

을 잘 먹지 않는 행동때문에 면역체계의 변화를 초래해서 결국 알레르기, 염증, 자가면역계 질환, 암 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개인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문제나 기질, 그리고 어릴 때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어기제형성이 중요하며, 또한 스트레스의 강도가 개인적인 반응의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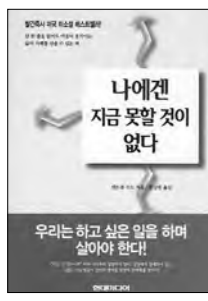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일반적으로 정신신체장애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학적 이상은 없어도 환자는 고통을 호소할 때 '신경성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바로 그런 질환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으로는 두통, 천식, 고혈압, 위장장애, 당뇨, 수면장애, 비만증, 약물이나 알콜 중독, 우울증 등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질환이 있다.

각 질환들은 그 질환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스트레스의 조절은 우선은 자기의 내면적인 문제를 알기 위한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하며,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이완요법으로 심호흡 법, 점진적 근육 이완법, 자율이완법, 명상, 참선 등을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

책소개

나에게는 지금 못할 것이 없다



무일푼의 한 남자가 5년만에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성공비결을 담은 책.

현재 미국에서 동기부여 세미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앤드류 우드의 삶과 성공을 101가지로 간추려 줘서 나쁜 삶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며 이를 아는 것 보다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정상에 오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벤처와 창업을 꿈꾸는 젊은 이들에게 성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대미디어 정가 8천원.

김용욱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책과 강연을 통해 노장 사상에 대한 대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도올 김용욱 선생의 불교관을 되짚어 본다.(변상섭 지음)

도올 선생이 말하는 불교 전반에 대한 오역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다들어 냈다. 저자는 말 한마디 글 한줄로 대중을 가르치고 있는 도올 선생을 위해서라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며 도올 선생의 불교관 해설과 번역에 비판을 가한다. 시공사 정가 7천 5백원.

이제, 승려의 입성을

허함이 어떨는지요



민족의 정신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친 불교의 근현대사를 새로 쓴 책.(박희승 지음)

일제 식민지 불교사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왜곡되어온 불교사를 6년의 자료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획기적인 발견으로 바로잡는다. 또한 근세불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독자가 관심을 가질 소재를 재미있게 정리하였다. 들녘 정가 8천원.

나는 위대한 여성으로 태어났다



현대 미국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여성들의 성공담을 엮었다.(이노우에 카즈마 지음) 여배우에서부터 국무장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의 여성들이 나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삶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자리매김을 꿈꾸는 여성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침과 미래에 대한 성찰을 제시한다. 모색 정가 7천 2백원.

달하나 천강에

새내기에게 띄우는 글

얇은 오뎅나무는 이미 가을빛을 드러내고 있구나. 짧은 것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옛 글이 있다. 그렇다. 그래서 아무도 풀도 성장하기 제일 좋은 계절, 이 짧은 봄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가 다투어 봄을 울리고 있을 피우려 하지 않는가? 이 한철 뿌리를 굳건히 하여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라, 굽히지 말고 쓰러지지 말아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았는가? 꽃이 피는 것은 한 식물도 그의 생명이 성숙했음을 밖으로 알리는 것으로, 꽃은 바로 생명의 확대와 연장의 상징이다. 이처럼 자아완성을 이룬 생명만이 자기를 확대하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아의 완성을 위하여,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진리

와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대학생의 일이다. 우리가 꽃을 사랑하고 젊음을 찬미하는 것은 거기서 생명의 진실, 생명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빨간 꽃이 아름다우며 누구나 빨간 꽃을 피운다면 그것이 과연 모두 아름다울까? 남을 닮는다는 것은 이미 진실이 아닌 허위이다. 빨강, 노랑 가지각색 서로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 조화를 이루고 서로 다른 향기를 발할 때 그 아름다움이 더욱 두드러지지 않았는가? 오늘날처럼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고 창의성이 요구되던 때도 없었다. 자기만의 색깔과 그윽한 향기로 생명의 의미를 한껏 드러내야 했다.



김대열 예술대 미술학부 교수

한일 영상 교류 포럼을 다녀와서

일본의 눈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평가하다

개방에 앞서 정체성 확보와 다양성 존중이 수반되어야

지난해 일본문화개방을 맞은 우리 대중 문화는 들떠 있었다. 차라리 소란스럽기까지 했다. 마치 일본으로부터의 거대한 해일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기라도 할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고 그만큼의 호기심과 기대로 숨막힐 듯한 긴장마저 맴돌았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일까. 영화계 입상작을 비롯, 예술성을 인정받은 작품 위주로 소개된 일본 영화는 그다지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이 윌드'라는 단어를 실감케하며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와이 슈운 감독의 '리브레터', 현란한 기타 선율과 황당한 설정을 앞세운 '사무라이 픽션' 등이 선전했지만 이렇다할 흥행성적을 올리거나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

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1차 개방의 결론만으로 심부름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 철저하게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고 이를 곧바로 경제논리로 접목시키는 일본문화의 위력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곳곳의 문화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일본문화의 힘을 알고 제 2차 일본문화 개방에 대처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일 유학협회 주최로 개최된 한일 영상 교류 포럼 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였다. 일본의 사진작가,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보다 자성적인 목소리로 일본 대중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

하며 더불어 일본문화 개방을 맞은 한국인의 인식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인 자리였다.

일본의 대중문화 평론가 미즈하시 준씨는 일본 대중문화의 역사를 POP의 변천사로 대변하며 "현재 일본의 POP은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미국 POP의 변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디 밴드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결코 주류라고는 볼 수 없다. 개방이 된다 할지라도 한국 시장을 잠식할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게임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의 위력만은 대단해서 일본 내에서조차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 정도라며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수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날



일본의 대표적 비주얼 락그룹 GLAY.

일본의 대중문화가 굳건한 뿌리를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곧 한계에 부딪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나라의 대중문화 역시 다르지 않다. 갑작스러운 문화 개방에 우리가 소란스러웠던 까닭은 개방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체성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문화 개방

을 반대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더욱이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더 이상 외국의 문화를 조심스럽게 걸러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2차 일본문화 개방을 앞둔 지금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주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문화 개방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자세이다.

최은진 기자

화상 채팅, “거짓말도 보여요”

기술적 보안을 통해 보다 일상적인 정착 필요

시대의 변천은 과거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점차 그 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최근 대학가·시내 주변 PC방은 모니터를 통해 비취지는 자신의 모습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로 붐빈다. 이는 '화상채팅'으로 불리우

며 기존의 채팅과는 달리 화면을 통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이트를 클릭한 후 다양한 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여러명 혹은 1대 1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캐릭터를 선정할 수도 있다. 이는

화상 채팅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유발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통신 혁명은 N세대라 불리는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의 역효과'를 확산시킨다는 문제점과 반강제적으로 일

굴을 공개해야하는 부담감은 기존의 채팅이 가지는 장점을 반감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인터넷 채팅방은 원조교제의 운상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날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화상채팅이 아닌 기존의 채팅에서 파생된 부작용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물지각한 이들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다수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되겠다. 화상채팅은 이러한 역효과를 보완하며 건전한 토론·놀이의 장으로 자리잡아 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영상의 선명함, 송신속도의

개선 등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점차 개선해 가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상 채팅뿐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 학자들이 동시에 실험과 토론을 할 시대, 3차원 화상회의가 일상적으로 정착할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제 우리에게 접차 발달해 가는 테크놀로지 시대에 빠르게 발맞춰 갈 일만 남은 것이다.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일본 대정대학 교환유학생 선발

- 선발분야 및 인원**
가. 분야 : 일본 대정대학 개설 전학과
나. 인원 : 2명(대학원 포함)
- 지원자격**
가. 2000학년도 1학기 현재 학부과정 5학기 또는 석·박사과정 재학중인 자
나. 해당 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다.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라. 일본어로 수험이 가능한 자
- 파견기간** : 2000. 9 ~ 2001. 8(1년간)
- 파견조건**
가. 분교
1)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분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기 등록금의 30%를 교환장학금으로 면제
2) 학점 인정 : 해당학과 졸업학점의 1/4 범위내에서 취득한 과목명, 학점, 성적을 그대로 인정
나. 대정대학
1) 학비 전액 면제
2) 장학금 월 ₩80,000 지급 - 일본 정부(문부성) 장학금
3) 기숙사비는 자비부담
-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학부과정 포함) 1부
- 전형방식** : 학교성적(20%) + 일본어필기(20%) + 일본어회화(20%) + 일반면접(40%)
- 전형일정(서울·경주 동일)**
가. 원서교부·접수 : 2000. 2. 28(월) ~ 3. 14(화), 국제교류담당관실
나. 전형일시·장소 : 2000. 3. 17(금) 14:00 ~, 국제교류담당관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담당관실(본관 2층, ☎ 2260-3875)로 문의 바랍니다.

연 구 처

'01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000 명
- 모집지역**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76. 3. 1 ~ '83. 2. 28사이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00. 3. 6 ~ 4. 22
- 장소 : 학군단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각 1부
· 학생종합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2부, 주민등록 초본 1부
· 신원진술서(A양식) 1부
· 병적 증명서 1부
· 대학 성적 증명서 1부
· 칼라사진(4x5cm) 5매
-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 2차 :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00. 11. 24
- 특 전**
- 무시험 선발
- 소위 일관, 중위 전역 또는 복무연장, 장기복무
- 의무복무기간 : 2년 4개월(장교중 최단기)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지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 문의처** : 학군단 서울캠퍼스 (02) 2260-8537, 8538
 경주캠퍼스 (0561) 770-2537, 2538

'00 군 장학생 모집

- 모집인원** : 1학년(00)명, 2학년(00)명
- 모집지역** : 4년제 대학 1, 2학년 재학생
1학년 ('77. 10. 1 ~ '84. 9. 31)
2학년 ('76. 10. 1 ~ '83. 9. 31)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00. 3. 2 ~ 4. 1
- 장소 : 학군단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각 1부
· 학생 종합 생활기록부 1부
· 대학성적 증명서 1부(1학년 제외)
·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지원서 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2부, 주민등록 초본 1부
· 재정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병적 증명서 1부
· 칼라사진(4x5cm) 7매
-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 2차 :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00. 8. 12
- 특 전**
-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 대학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급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지 활용
- 전역후 일반 기업체 취업알선
- 문의처** : 학군단 서울캠퍼스 (02) 2260-8537, 8538
 경주캠퍼스 (0561) 770-2537, 2538

제112 학생군사교육단

매체비평

-TV / 방송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SBS 토커넷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송의 대표적 사례.

21세기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는 매스미디어와 대화한다"

이제 나도 방송을 보면서 PD가 되고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뽑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물건을 살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 그것은 요즘 정보 통신의 발달 덕분에 기존의 미디어를 활용한 뉴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시밀리 등과 같은 별도의 의사전달채널을 이용했지만 뉴미디어 분야, 예를 들어 케이블 TV나 인터넷은 정보의 쌍방향적 교환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최근에는 공중과 방송에서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단순히 프로그램진출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시작한 'SBS 생방송 토크쇼'의 경우는 방송과 인터넷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시청자들의 실시간(real-time) 참여가 보장되고 인터넷의 다양한 잠정적 정보의 제공도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의 구성가운데 <넷초이스>코너에서는 네티즌에게 일주일 전 주제를 던져 질문한 결과 1위로 뽑힌 연예인을 초대, 스튜디오에서 MC가 오늘의 초대손님과 토크를 시작하고 네티즌들은 즉각적으로 채팅 창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넷 경매>코너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네티즌이 참여하는 코너로 초대손님이 가격을 정하는 낙찰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이 프로는 기존의 방송과는 다르게 실시간에 이루어 지고

시청자의 feedback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본다면 지금까지는 미미한 실정이다. 김홍규의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개론서를 보면 주문형비디오(VOD:video on demand)의 경우 케이블 가입자가 보고 싶은 비디오를 신청하면 방송사에서는 유선망을 통해 개별 가입자에게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지만 대중적인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 미국의 성인 6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보고속도로를 오락물로 이용하기 보다는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참고자료를 모으는 데, 또는 수업에 이용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설문조사는 쌍방향 방송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람들이 모닝커피와 더불어 신문을 읽는 일이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소파에서 좋아하는 잡지를 보거나 드라마 보는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어떤 뉴미디어이든 기존 미디어와 자리를 나란히 경쟁 할 것이고 기존의 미디어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매체가 변화하고 있다면 미래에는 매체의 개념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신문을 통합하는 매체 즉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매체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왕경숙
연문정보대학원 신문방송 석사과정
(kswang1@hanmail.net)

새로운 세기의 여성 그리고 평등의 희망

다원화되고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여성 개개인의 색깔을 담아내고 존중해야

새천년에 맞는 3·8 여성의 날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 2000년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분명 세기의 전환은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가늠하게 하는 것 같다.

6개월마다 신제품이 출하되듯이 아니 매일 매일 달라지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의 속도처럼 여성들의 삶도 일상의 분주함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여왔다. 같은 시간과 공간을 호흡하고는 있지만 우리 어머니 시대의 삶과 우리의 삶,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딸들의 삶은 너무도 다름을 우리는 매시간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사회에서 지난 80년대와 90년대는 여성들의 삶과 자의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던 시기였다. 여성주의와 성평등이라는 담론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거부장적 국가마저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직

장을부터 세금, 복지, 양육 그리고 가정생활과 일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침해에 침묵하던 국가로 하여금 이것을 수정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성평등을 촉진시키는 일부터 시작해, 할당제 등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기구의 탄생도 보여왔다. 성차별이 수정되어야 하고 평등이 달성되어야 함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여성들의 자의식도 이러한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여성주의적 변화를 보여 준다. 남녀공학 진학에서 여대생 비율의 증가, 여성들의 높은 취업의식, 금녀의 영역들을 깨뜨리는 여성들을 보면 무엇인가 변화의 희망

을 갖게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낙관할 수 있을까? 세기의 전환기에 국가는 대체로 보였던 성평등 구현에 반드시 진취적인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황문이론을 제기했던 여성노인의 해소, 무복무기산정제도 위한 판결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극심한 반발에 당황한 국가의 급조된 여성 봉사제도는 대안·동성동거, 결혼 금지, 무엇보다도 IMF 시기 조실의진태에서 수많은 처우여성의 우선해고에 뒷받침된 국가의 태도는 한국판 backlash을 감지하지 못한 채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된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현재의 개성이나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만으로는 일거에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리적인 직접차별의 형태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차별로 녹아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쟁과 능력주의를 가속화하는 신자유주의 바람은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면서 오직 성과와 업적의 이름으로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떨칠 수 없다. 정신없이 끌려 들어가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제기는 미약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결정적인 아닐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여성주의가 우리 사회에 던진 문제제기 그리고 여성운동의 끈질긴 노력은 삶의 여러 영역들로 넓혀지고 있다. 또 여성주의가 소수 엘리트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이런저런 여성들의 다양한 자기 이야기로 변신하고 있다. 연극과 영화에서, 문학과 철학에서, 직장에서, 부부관계와 양육, 생활문화에서, 환경문제와 성문제에서, 그리고 사이비공간과 경영에서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성주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여러 가지 색깔의 사람들이 제각기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여성주의는 한 목소리, 한 빛깔일 수 없다.

이제 여성주의에서 여성은 차별을 당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여성만이 아니라 국가와 교섭하는 시민으로서 다양한 여성들이다. 또 여성은 차별에 항의하고 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삶의 각 영역에서 실제로 평등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임을 요청받는다. 그래서 어쩌면 다원화된 시민운동 속에서 여성운동은 더 급진적이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레아만 변화와 반전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자기의 빛을 계속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인순
건국대 여성학 강사
Myungwi@chollian.net

평등으로 내딛는 발걸음

오는 13일 다양한 행사와 함께 한국여성대회 열려

한국 여성 단체 연합에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 해마다 한국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한국 여성대회는 오는 12일 KBS홀에서 1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야외행사, 실내행사, 거리행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실내행사에서는 작년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여성문화제' 수상작 시상과 더불어 올해의 여성운동상도 발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99년 한해동안 여성 권익의 다짐들과 걸림돌을 선정,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걸림돌을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한 시선들을 향해 맞서고 있다.

△420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사진상규명 법제정을 이끌어 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족) 어머니날

△성차별적 여성우선해고에 온 몸으로 저항한 농협중앙회 노동자 김미숙, 김향아씨

걸림돌

△여성노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경기보조원에게 여성 차별적 40세 조기정년해고를 자행한 한화국토개발(주) 프라자 컨트리 클럽

△군가산제 위한 결정에 반대하며 여성 네티즌을 상대로 무차별 사이버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근거없는 비방모략으로 공익활동하는 여성단체를 명예훼손한 한나라당인사철 연대행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현정권과 유착되었다는 비방을 함.

△공기(公器)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여성의 성상표화를 부추긴 SBS 슈퍼엘리트모델선발대회 '갈라쇼'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고 선정적인 자세로 계단을 오르는 화면을 방송하는 행태로 '여성상성상표화' 했다. 문화부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러거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하루에도 12~14시간씩 일해야했고 귀부인들의 외출복 장식을 만드느라 눈이 머는 여성이 생기기까지 했지만 선거권도 노동조합결성의 자유도 여성에게는 제외되었다. 이에 1908년 3월 8일 뉴욕노동자들의 시위를 계기로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한국 여성 대회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 여성 대회는 1920년대부터 치뤄져 왔으나 일제강점기로 그 맥이 끊겼고 해방 이후 계속된 탄압에 1985년에 이르러서야 계승될 수 있었다.

1985년에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제 1회 한국 여성 대회를 개최하였고 올해로 16회째를 맞게 된다.

한국 여성 대회는 정국의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남성·여성들이 모여 여성의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인터뷰

2000학년도 총여학생회를 이끌어갈 총여학생회 회장(김박선경·행정4)을 만나 동아 내 총여학생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2000년 총여학생회에서 기획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과 활동은?
여학생들의 복지문제와 문화사업, 그리고 성폭력방지 학제적 접근입니다.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

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여학생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여학생들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타 편의시설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 주제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성폭력 방지학제 제정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는?
성폭력·성희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직접적인 폭행이나 희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원치 않는 스킨십 역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문제의식을 느끼고 바뀌어나가야 합니다.

-총여학생회가 가지는 역할과 위상은?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곳입니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여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나 개인의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진지하게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느껴 사회에 대항하고자 할 때 성역할을 비롯한 사회통념으로부터 이중적인 역할을 감수해야 할

니다. 반면 남성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사회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항이 격렬해 질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극단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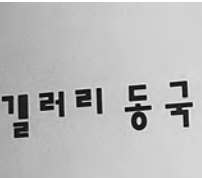
- '부모성 같이 쓰기'에 대한 공감이 많은데,
후주제 폐지를 위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후주제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부모의 성을 함께 쓰자는 것입니다. '성(姓)' 자체가 가장장적인 사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후주제는 여성을 단지 '아내, 어머니'로만 한정짓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성을 함께 쓰자라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학우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일상적이고 근거리적인 선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총여학생회가 아닌 아무때나 들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최은진 기자

잡지인사

학교 안에서

미술학부 개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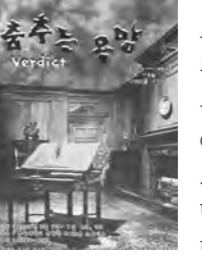
서울캠 미술학부에서는 2000학년도 개강을 맞아 방학 동안 만든 작품들을 전시한다.

조소전공전과 서양화, 한국화, 불교미술전공전으로 나눠 열릴 이번 개강전은 기존의 수업내용에 얽매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만든 작품들이다.

3월 6일~11일 조소전공전, 3월 13일~18일 서양화, 한국화, 불교미술전공전. 90주년 기념 문화관 지하1층 갤러리 통곡에서.

문의 2260-3670

춤추는 욕망



서울캠 연극영상학부에서는 3, 4학년 동계 WORKSHOP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원작 버디트(Verdict)를 각색한 작품이다.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다룬 아가사 크리스티의 흔치 않은 멜로물. 아가사 크리스티의 또 다른 작품세계를 감상해 보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듯.

3월 7일~8일 4시, 7시 90주년 기념 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2260-8753

학교 밖에서

봄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역사 속의 광주를 벗어나 새로운 광주를 만들어 본다. 5·18 광주 민주화쟁 20주년을 맞아 당시의 상황을 극적이고 미학적으로 승화시켜 '광주의 고독'을 집중 조명해 보고 5·18이 우리에게 남겨준 의의를 다시 돌아보는 무대. 이번 공연은 서울과 광주에서 열리며, 한신대 임철우 교수의 장편소설 '봄날'을 각색한 작품이다.

3월 10일~12일 금 7시 30분, 토, 일 3시 7시 30분.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문의 765-5476

MADE IN JAPAN (부제: 배정자를 아시나요)



김국균에 의해 잊혀진 오 히로부미의 양녀가 된 후 친일적 행동으로 일제시대의 '매국노'라고 불리웠던 배정자를 다룬 연극이 무대에 올려진다. 이 연극을 통해서 그녀의 삶을 재조명 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98년 애국지사 '01:정정화'로 알려졌다던 원영애가 배정자 역을 맡아 열연한다. 3월 1일~19일 월수 7시 30분 목·일, 공휴일 4시 7시 30분 동충에서 문의 766-8679

메아리

바뀌!

▲"설마했던 내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내가 나를 버렸어."

얼마전 총선시민연대의 한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대학생들이 낙천·낙선운동에 소극적"이라며 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가득찬 시민들에게 낙천·낙선운동은 "신선할" 그 자체였고 처음 부추는 승승장구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한몸

에 받았다. 그러나 선거를 40여일 남겨두고 있는 지금 낙선운동은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젊은이들의 무관심'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무관심은 정말 '역시'였던 모양이다.

▲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가요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이정현은 늘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사랑해요"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이후 각종 신문의 1

면 답기사는 모두 이들의 차이였다. 온통 세상은 '바뀌' 열풍으로 뜨거웠다. 각종 사회단체의 지지성명서가 쏟아져 나왔으며 한총련과 전학협 그리고 그 밖의 대학총학생회들도 지지성명서를 발표했다. "총선연대 지지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일도 없다. 예상밖의 일이다.

▲ 이정현이 활동중 중단할 까닭일까? '바뀌'로 세상을 휩쓸던 테크노 열풍은 결

국 세상을 다 바꾸기도 전에 수그러들었다. 언론의 흠집내기와 선거법 등 각종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지난 2일에는 총선연대 대표단이 명동성당에 전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합법적 불복종 운동에서 불법적인 불복종 운동으로 강행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제 낙선운동은 '그들만의 품격'이 된 것이다.

▲ "잘 자, 내 꿈꿔" 선거혁명은 '개꿈'으로 끝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큰 변화의 순간마다 최선봉에서 민중들을 이끌어왔던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대학생들이 아니었던가. 모순된 사회에 대항하며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외쳐대던 '백만 학도'들은 다 어딜가고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입으로만 '대중속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정적권은 이렇게 말한다. "잘 자, 개 꿈꿔" 김진아 편집장

소나기

새터를 생각하며...



△그분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엄숙해야 한다.
 △아무 잘못 없는 학우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관심 가져주신 타 대학생들께 감사드리고 먼길을 먼저간 후배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후배들을 위해 애쓰다가 가신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운명을 달리 하신 분들에게 명복을.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동지야! 너 평생 나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한 추억 잊을 수가 없을 꺼야 △보고 싶다. 관광버스 측은 반성해야 한다. △길을 달리던 후배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일이... △00학번들은 이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학교측에서 버스를 대여해 줬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버스 회사측은 각성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말라.
 △00학번들이야! 깊이 감사하고 선배들의 죽음에 애도하다
 △애도를 표합니다. 성별하십시오!
 △7명의 학우들의 마음으로 2년전을 살아가요...
 △총학생회장님이 누구보다 가슴 아픈 사람일 겁니다. 맘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단국대 학생이 동국대 들렀다가...
 △새나기를 생각하면 웃음이... 먼저보낸 이들을 생각하면 눈물만 흐른다.
 △정은아, 학은아! 너희 생각하며 사범대 새터 잘 치렀다! 항상 너희 생각하며 율한해 열심히 살게. 하늘에서 우리 꼭 지켜봐주세요. 사랑한다!
 △잠시동안 생각하다 오랫동안 잊혀질까 그게 겁난다
 △너희의 희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편히 눈감아라.

TEL : 22603491 · 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 dgpress
 나우누리 ID : 동대신문
 천리안 ID :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얼갈이두부국(1300) 제육김치덮밥(1500)
화	조개살미역국(1300) 만두탕수(1300)
수	사리곰탕(1300) 모듬소스볶음밥(1500)
목	원장짜개떡볶이(1300) 오징어생이채비빔밥(1500)
금	복어채계란국(1300) 돈까스(13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순두부찌개(1300) 황태뚝배기(3500) 닭고치구이(1500) 돈갈비찜(3500)
화	육개장(1500) 영계백숙(3800) 김치볶음밥(1300) 김치무조림백반(3000)
수	사골우거지국(1300) 추어탕(3800) 불고기백반(1500) 열무비빔밥(3000)
목	짬뽕국밥(1500) 소금국(3300) 비빔밥(1300) 잡채술밥(3000)
금	참치간짜개(1300) 부지전골(3500) 순살돈까스(1500) 비후까스(3800)

(단위: 원)

경주캠, 도서관 검색대 설치 필요

지역연계 중요하나 학생권리 더욱 중요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외부인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또한 그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교의 면학 분위기를 흐린 적도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부족한 공간에 외부인까지 출입하니 자리가 부족해 그냥 돌아간 본교 학생을 본 적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 때마다 외부인 통제에 필수적 요소인 검색대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미 수도권 각 대학 및 지방의 몇몇 대학도 검색대가 설치되어 많은 효험을 보고 있다.
 내가 직접 본 타대학 검색대는 지하

철표 검색대와 유사 한 것으로서 학생증을 투입 시키면 수위직원이 단탈기로 확인하는 것으로 외부인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난 방지 및 기타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지역과의 연계성을 생각해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본교 학생이 외부인의 출입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므로, 학생의 기본적 권리인 도서관 열람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색대를 설치해 주길 바란다.

이태근 (자연대 수학교육과 4)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요구

교육환경 개선·복지후생에 투자해야...

매년 우리는 기백의 등록금을 낸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잠시 동결되었던 등록금은 이번 학기 13%가량 인상될 기세다. 아직 학생들이 그 금액을 혐의한 바 없으나, 학교측에서는 이미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새내기들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록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환경이 93년 이후 매년 인상 일변도를 달려온 등록금만큼 나아졌는가는 의문이다. 혹자는 정보문화관, BSC, 상록원, 벤처창업 보육센터를 두고 '이게 나아진 증거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외홍보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했던 많은 기회비용은 과연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알다시피 본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당연히 있어야 할 학생회실을 얻어내기 위해 6개월씩, 1년씩 접가와 농성을 벌였던 우리다. 우리는 지난해 다량관 점거 농성을 기억한다. 상록원이라는 몇층짜리 식당이 들어서면서 별종은 풀밭을 조망하던 '다향관' 공간을 대가로 내주어야 했다. 또한 BSC가 들어서면서 경상대의 숲한 자치공간과 강의실이 자취를 감추거나 축소되었고, 현재 벤처창업센터가 들어서면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학교당국은 늘 누구도 동의한 적 없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치공간과 강의실, 휴식공간을 축소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이다. 등록금 인상을 통보하면서도 학교당국은 '너희를 때

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가 말하는 논리들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그 동안 우리는 논 팔고, 소 팔아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란다. 요구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등록금을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기껏해야 몇백 명이 고작인 일개 학과에서도 학생회비를 걷으면, 그 사용내역을 10원짜리 하나 빼놓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이러한 일은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신하여 그 돈을 학생들의 복지후생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물며 1만 2천의 학생을 품고 있는 학교의 경우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일들이 선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학교는 등록금 인상의 정당성을 이야기 할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김박연미 (사과대 북한학과 3)



새내기 세상 ... 밀레니엄 대학생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 21세기를 향해 힘껏 내딛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날

모니터링

제 1288호 동대신문을 읽고

“독자의 호응 유발하는 주제 선정 필요”

대학신문이 지닌 한계점 드러나 아쉬워 ... 학생과의 공감 가장 중요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독자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발행되고 있는 동대신문의 경우 과연 얼마나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주제로 기사를 다루고 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지난 2월 14일자 졸업호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종합 보도의 경우 기사 수도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기자의 취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문화면은 기사선정과 편집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사진 몇장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열해 졸업이라는 큰 의미를 부각시키려했던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그리고 사회면은 너무 무겁고, 운동적인 주제가 대부분이다보니 자연스럽게 신문을 읽다가도 그냥 스쳐지나기가 심상이라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 한겨레나 중앙일보와 같은 일간지의 성격을 지닌 사회면은 다른 어떤 면 보다도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학신문이 지닌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지적하고 싶은 면은 학위수여자 명단이 실린 면이다. 그렇게 많은 지면을 단순히 졸업생들의 명단으로만 채웠던 점은 신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명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 낭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많은 독자들이 가졌으리라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학보는 학생과의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대신문을 자주 읽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신문사에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학업과 신문작업을 병행하며 다른 일반학생들보다 2배의 고생을 하고 있는 기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우들에게 한발짝 다가설 수 있고 새 시대에 걸맞는 알찬 주제로 신문을 제작한다면 한 명의 독자라도 더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 본다.

김태숙(인문과학대 국문학과 3)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총학생회 임박식을 축하드려요.
 △사회과학대 새내기 여러분 입학 축하드리고 북한학과 사무실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98학번 선배가

열심히 합니다
 △등록금 동결을 위해 열심히 합니다.
 -공평한 재학생
 △은선아 힘내! 창호야 화이팅!
 -roket123
 △Fearless dawn 공연 준비 확실하...!화이팅!
 -73=24
 △자연과학부 화이팅!
 -9901번이
 △선영, 민수, 선미 Fighting
 -황

△국어교육과 새내기들 파이팅! 잘 살자.
 -국교과 선배가

그리고...
 △내 나이 22살 휴...그래도 생일날은 기다려지네.
 -짬뽕이
 △지은아! 개학이다. 잘자 내꿈꿔~
 -로켓트 123
 △잘하는 것도 없고, 이쁘지도 않은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선배님들... 너무 감사하구요. 사랑해요!!!
 -행복에 겨운 은영이

은방글
축하합니다
 △수학교육과 00학번들 입학은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앞으로 대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국문과 김부 여러분 O.T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신만큼 보람이 있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콩나물국(1300) 제육두부찌개(1300) 햄이채볶음밥(1600) 잡채밥(1800)
화	쇠고기미역국(1300) 열갈이국(1300) 오징어볶음덮밥(1600) 스키카제(1800)
수	된장찌개(1300) 근대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곰탕(1800)
목	김치두부국(1300) 쇠고기갈비국(1300) 햄박스떡(1800) 케라리스(1500)
금	김치양파국(1300) 해물매운국(1300) 김치볶음밥(1600) 전주비빔밥(1800)
토	오징어무국(1300) 돈육덮밥(1600)
일	콩나물국(1300) 설렁탕(1800)

(단위: 원)

-등투 가족 일동